



나·무·에·얼·힌·동·화/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를 기르는 데는 누구의 공이 가장 클까?

글·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티베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숲 속에서 꿩과 토끼와 원숭이가 꼬끼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넷이는 늘 어우러 다니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꿩은 먼 나라에 있다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고 맛있는 복숭아가 일 년 내내 열리는 복숭아나무가 있네. 이 복숭아나무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몇 년이나 묵었다는 거야.”

“야, 신기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복숭아 맛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복숭아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대, 날마다 복숭아가 열리면 배가 부르게 복숭아를 따 먹을 텐데.”

세 친구는 꿩의 말을 듣고 군침을 삼켰습니다. 꿩이 다시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도 복숭아나무를 기르는 게 어렵까? 내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그 나라까지 가서 복숭아 씨를 구해 볼게.”

“정말? 복숭아 씨만 구해 온다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복숭아나무를 가꿀 수 있지.”

“그야 물론이지. 그런 꿩이 날아가서 복숭아 씨를 구해 오련.”

모두들 찬성하여 꿩은 복숭아나무가 있다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겪은 끝에 33일 만에 무사히 복숭아 씨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말했습니다.

“심는 거라면 나를 따라봐 동물이 없지.”

토끼는 복숭아 씨를 숲 속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숭이가 나섰습니다.

“나만큼 과일을 많이 먹어 본 동물이 없으군. 복숭아도 배가 터지도록 먹어 봤지. 그래서 거름을 얼마나 주고 어떻게 돌보면 맛 좋은 복숭아가 열리는지 안단 말이야.”

원숭이는 복숭아나무에 거름을 주고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것은 꼬끼리였습니다.

“나무에 거름만 줘선 안 돼. 날마다 물을 줘야 복숭아나무가 싹 싹 자라지.”

꼬끼리는 날마다 물가에서 흐린 물을 빨아들여 복숭아나무에 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네 친구가 힘을 모은 덕에, 복숭아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가지마다 주렁주렁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복숭아가 익은 것을 처음 본 것은 꿩이었습니다. 꿩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숭아가 익었구나. 내가 먼 나라까지 날아가서 복숭아 씨를 가져왔지. 내가 없었더라면 이 숲에 어떻게 복숭아나무가 뿌리를 내렸겠어.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웠으니 복숭아를 가장 많이 먹어야 해.’

꿩은 나무 꼭대기에 내려앉아, 윗가지에 열린 복숭아를 배부르게 따 먹었습니다.

그 다음 복숭아가 익은 것을 본 것은 원숭이였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어 복숭아가 탱스럽게 익었구나. 복숭아를 내가 가장 많이 먹어도 친구들은 불평하지 않겠지?’

나·무·에·엮·힌·동·화/복숭아나무

원숭이는 나무 위로 쭉쭉 올라가 복숭아를 실컷 따 먹었습니다.

원숭이가 돌아간 뒤 코끼리가 복숭아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복숭아가 먹음직스럽게 익었네. 이게 다 낱마다 내가 물을 준 덕이야. 복숭아는 내가 가장 많이 먹어야 해.’

코끼리는 가지를 향해 코를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가지를 잡아당겨, 가지에 달린 복숭아를 배 터지게 따 먹었습니다.

굉장히 원숭이와 코끼리가 따 먹어도 복숭아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끼는 주저주저거리면서 연인 복숭아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탈 줄 몰라 복숭아를 따 먹을 수 없었습니다. 토끼는 목을 빼두고 안타깝게 복숭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복숭아나무는 그 뒤에도 쑥쑥 자랐습니다. 이제는 코끼리가 기다란 코를 뻗어도 가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코끼리는 토끼와 한 편이 되어 굉장히 원숭이와 맞섰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지? 정성껏 심고 물을 주며 가꾼 것은 우리인데, 너희들끼리만 복숭아를 따 먹어? 못된 것들!”

코끼리는 굉장히 원숭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토끼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 우리를 따돌리고 너희들끼리만 배를 채워? 나는 이제까지 저절로 땅에 떨어진 복숭아 한 개 따고는 복숭아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굉장히 원숭이는 코뿔끼만 꺾었습니다. 코끼리만 토끼의 말을 들은 채 말 채하며 복숭아를 따 먹기 바빴습니다.

코끼리와 토끼는 억울하고 분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굉장히 원숭이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티격태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친구는 지혜롭다는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자가 물었습니다.

“너희 셋은 복숭아나무 때문에 아웅다웅 다툰다고 들었다. 이 숲에는 원래 복숭아나무가 없었

는데, 어떻게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느냐?”

굉장히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다 제 덕이지요. 먼 나라에 복숭아가 일 년 내내 열리는 복숭아나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그 나라를 찾아가서 33일 만에 복숭아 씨를 구해 왔거든요. 제가 가장 공이 크다는 걸 이제 아시겠지요?”

토끼가 끼어들었습니다.

“흠, 복숭아 씨를 구해 오면 뭐해. 정성껏 심어 나무로 자라게 하지 않으면 뭘 할 것이지. 복숭아 씨를 심은 게 바른 처예요. 저는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이제까지 복숭아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것도 저절로 땅에 떨어진 복숭아예요. 너 무너무 억울해서 밖에 잠이 안 깎요.”

원숭이가 가소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땡땡한 소리 하고 있네. 심기만 하면 나무가 저절로 자라는지 아니? 때맞춰 거름을 줘야 잘 자라지. 제가 그 일을 맡았으니 일등 공신이라고요.”

코끼리도 한 마디 했습니다.

“일등 공신 좋아하네. 나무는 거름만 준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야. 낱마다 물을 줘야 쑥쑥 자라지. 이렇게 큰일을 했으니 저야말로 일등 공신이라고요. 그런데 복숭아 맛을 본 지 오래되었으니 많이 됩니까?”

현자는 네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두가 수고 많았구나. 넷 다 큰 공을 세웠어. 따라서 복숭아를 넷이서 똑같이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다. 복숭아도 넷이서 같이 따고……. 그러면 다투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게 될 거다.”

굉장히 토끼와 원숭이와 코끼리는 현자가 일러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딸 때는 넷이서 힘을 합쳤습니다.

코끼리가 나무 아래에 서면, 원숭이가 코끼리 등에 올라갑니다. 이어서 토끼는 원숭이 등에 올라서고, 굉장히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복숭아를 따서 토끼에게 주면, 토끼는 원숭이에게 주고, 원숭이는 코끼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사이 좋게 복숭아를 따서, 네 친구는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굉장히 토끼와 원숭이와 코끼리는 처음처럼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